

# “부강한 광주 도약 원년으로”

##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이전·지하철 문제 등 해묵은 과제 해결로 자신감 인공지능·미래차·반도체 지역 경제 이끌 3대 동력 ‘꿀잼 도시 광주’ 속도 낸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6년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부강한 광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군공항 이전 합의와 도시철도 2호선 도로 개방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송년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성과와 내년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술한 위기 속에서도 광주 정신이 빛난 해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청사를 개방해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진 점을 언급하며,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난제 해결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취임 당시 약속했던 ‘5+1’ 현안 중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혔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무안 통합공항 이전에 합의하며 18년 묵은 실타래를 풀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전남도지사와의 합의뿐 아니라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얻어낸 결과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직을 걸고 약속했던 도시철도 2호선 상부 도로 개방을 지난 22일 완료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부강한 광



주’다. 경제적 풍요인 ‘부(富)와 광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강(强)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반도체를 지역 경제를 이끌 3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국산 AI반도체(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200대를 도심 곳곳에 투입해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 기지를 조성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놔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의 국비 확보는 이러한 계획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강 시장은 전년 대비 16.6% 늘어난 예산이 광주가 미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들어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사다리를 튼튼히 하고, 9대 대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꿀잼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더현대 광주’ 착공에 이어 신세계 확장과 이등산 스타필드 사업도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고, 출생률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미래 산업 육성과 돌봄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에너지 수도로 전남 대부흥”

## 김영록 전남지사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 인공태양시설·누리호 성공 전남지사 3선 도전 공식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년을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AI-에너지 수도, 전남도 대부흥’의 길을 여는 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을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전남’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김 지사는 2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간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를 사업 등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과 ‘해상풍력 지원부드’ 등 배후단지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또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전력망)을 곳곳에 구축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만권 산업·대불산단 등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을 약속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장성, 광양, 순천, 해남 등 권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해 AI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등 첨단 소재 중심지로, 여수·광양만권 산단을 중심으로 남해안 수소산업벨트를 완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유치에 성공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시대’를 열게 된 우주항공 기술과 AI, 바이오, 수소, 첨단소재, 전력망 등 차세대 첨단기술 연구를 주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제조업과 농수산업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AI·탈탄소·고부가가치를 적극 활용해 ‘AI 대전환 초혁신 전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 대불국가산단을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구축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에 2030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 고용과 경영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I 대전환의 흐름을 농수축산업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남형 농수축산업 AX’를 추진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남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목전에 둔 것과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 역시 성과로 봤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성과로 2018년 6조원대였던 국고 예산의 10조원 시대를 열고, 1인당 개인소득 전국 9위(2018년 12위), 가구소득 전국 8위(2018년 16위) 등 경제 도약을 언급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3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결심은 이미 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천재일우와도 같은 황금같은 시기가 이제서야 왔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큰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국 어선 불법조업 아주 못됐다...강력 제재해야”

### 이 대통령 “벌금 올리고 최대한 나포하라” 공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말을 꺼냈다.

이어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

하려고 쇄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던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아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여서 내기도 부담

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자판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권 논란

### 160여만원 상당 서비스이용 정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

원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료는 (보도와)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객실)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원 초중반”이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감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